

## 의미의 의미들

(김순기에게 보내는 글)

### 장 록 낭시

‘sentire’라는 동사의 라틴어 어근을 사용하는 유럽어를 보면, 그 의미들이 확대되고, 때로는 흔들리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여러 단어들 발견됩니다. 즉, 의미(meaning), 감각기능(예컨대, 청각), 감각기능들 중 특별한 하나(예컨대, ‘후각’을 통해 포착하기), 혹은 역으로 ‘냄새를 풍기다’라는 뜻을 가진 불어 ‘sentire’나, 감각 일반을 뜻하는 것은 물론 이해하다라는 뜻도 가진 이탈리아어 ‘sentire’ 따위), 방향(일방향=one way), 지성 혹은 이해력(불어의 sens commun, 영어의 common sense), 특별한 소질이나 솜씨(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혹은 정서적 상태(느낌), 감수성(=민감성, 예컨대 그는 비판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같은 식의 다의성이 발견된다는데 이것은 독일어에서도 발견됩니다. 비록 다른 어근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독일어 ‘sinn’은 의미 혹은 감성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나는 비유럽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감각적 차원, 지성적 차원, 정서적 차원, 방향적 차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이 다의어가 다른 언어에서도 발견되는지 나 역시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sens’라는 단어의 이 모든 의미들에 공통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남이라는 요소입니다. 위의 모든 경우에서, 주어지는 것과 수용 작용 사이에는 관계와 만남과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은 감각에 의해 접촉되며, 정신은 정보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정서를 느끼고, 벡터는 방향(어떤 목표, 끝지점을 향한)을 수용합니다. 그 어떤 ‘sens’ 이건 간에 ‘sens’는 항상 안과 밖, 능동성과 수동성에 의해 구성됩니다. 그것은 그 둘이 만나는 극한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sens’ 그 자체는 능동적이지도 않고 수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만나는 두 극 혹은 두 쪽 사이에서의 전이(renvoi) 속에 자신의 모든 실존과 자신의 모든 지속(consistance), 자신의 모든 형식을 갖습니다. 정확히 이런 방식에 의해, 한 단어의 ‘sens’는 항상 무엇인가에로의 전이이고, 동시에 그것과 구분되는 또 다른 단어들로의 전이이며,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거나 믿지 않고, 그것의 진위를 판단하는 주체가 이해하는 각도에서의 의미로(signification) 또 전이하는 그 자체의 전이입니다.

‘sens’는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니까? 한국어에는 ‘sens’의 모든 의미들에 대응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 상이한 의미들에 대응하는 각기 다른 단어들 존재하나요?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sens’라는 단어는 결코 번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유럽 언어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언어에서도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불어, 루마니아어처럼 라틴어에서 온 언어들조차도 서로 완전히 혹은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극소수의 단어만이 참으로 번역 가능합니다. 아니, 그전에 ‘참으로 번역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약간만 반성해 보면 그것은 모순된 표현임이 밝혀집니다. 그 표현은 상이한 ‘단어’에 같은 ‘의미’가 적분적이고 상사변환적이고 나머지가 없이 치환된다는 관념을 연상시킵니다.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한 언어 안에서, 단어에서 단어로의 전이일 뿐만 아니라 언어에서 언어로의 전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전이는 언어들 사이의 차이가 한 언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단어의 ‘의미’를 종결시키기 위해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sens’의 의미를 ‘signification(=의미작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나에게서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이 파악은 필연적으로 열려 있고 비규정적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파악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의미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 속에서 그 의미가 언표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번역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완전히 끝을 갖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역의 무한함은 번역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또한 언어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언어의 조건은 또한 각 언어의 조건입니다. 각 언어에서 ‘의미’는 단어들, 문장들, 문맥들, 언표자들, 표상들, 표상의 연합들 사이에서 끊임없

이 순환합니다. 게다가 상실되는 '의미들'과 나타나는 다른 의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sens'의 가장 고유한 의미는 그것의 끝을 갖지 않는 전이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의 전이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항상 더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전이됩니다.

'sens'의 방향적 의미를 가시화할 때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서양'이라는 거대한 방향적 도식이 존재합니다. 이 도식 자체는 '서양'의 산물입니다. 여기서 '서양'은 태양이 지는 지역으로 지칭되며, '동양'은 해가 뜨는 지역으로 지칭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라틴어 단어의 의미였으며, 여기서 '동양'과 '서양'이라는 단어가 온 것입니다(이 단어들은 예컨대 독일어에서는 '아침의 나라-Morgenland'와 '저녁의 나라-Abendland'라고 불립니다). 또한 이 의미들은 '동'과 '서'라는 엄밀한 우주 형상지(誌)적 용어에도 색채를 부여했으며,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지리적 명칭에도 색채를 부여했습니다(다른 명칭인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북'이라는 축의 또 다른 조합에 따라 정돈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볼 때는, 그리고 그저 순환으로서는, 태양의 뜨고 지는 지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땅의 순환은 바로 이런 식으로 방향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sens'는 한 지역('서양'이라 불리는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이입니다. 이 다른 지역은 더 근원적이고 더 토착적이라고 여겨지며, 시작의 빛에 의해 (또한 그것의 무구함 또는 신비, 그것의 무기력함 또는 차분함 등에 의해) 표시됩니다. 서양 그 자신은 몰락, 어두워짐, 밤으로 들어감이라고 생각되며, 그래서 새벽, 젊음, 신선함의 상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서적, 상징적, 형이상학적 의미는 단번에 방향적 의미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왼쪽과 오른쪽, 높은 곳과 낮은 곳, 출발과 도착, 직선 궤도와 곡선 궤도 등 모든 방향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 모든 'sens'는 진보나 퇴행, 추락, 고양, 최선이나 최악으로의 진행, 혹은 끝없는 무한한 진행으로의 진행이며, 이것은 모든 방향과 모든 의미에서 나옴으로써만 끝납니다. 더 이상 찾지 못하는 방향.

Sens의 전이가 다른 모습으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적 sens와 방향적 sens너머에, 감각적 sens와 정서적 sens 너머에, 서양에서 'art(=예술, 기예, 기술)'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양인이 서로 다른 용어로 부르는 것, 즉 음악, 회화, 데생, 노래, 춤, 건축, 시, 사진, 영화, 비디오 그리고 또한 '작은 예술'이라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범주에 속하는 요리, 향수 제조, 의상, 일상적 물건의 디자인(데생을 가리키는 라틴어에서 유래하며 영어로 대중화되었다) 등을 결집시킵니다. 이 실천들에 공통된 것은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실천들은 언어와 거의 혹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또한 시에서처럼 그 실천들이 언어와 관련될 때에도, 그것은 정확히 '의미하기'라는 용법이 아닌 용법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그 실천들은 의미작용의 영역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실천들이 '미'에 종사한다고 흔쾌히 말합니다. 하지만 '미' 자체는 쉽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미에 적합한 확고부동한 규칙들에 결코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컨대,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이미지'에 공통된 것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적어도 한 세기 전부터 서양이 '예술'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는 데 동의한 영역은 결코 '아름다움' (잘못 규정된 아름다움일지라도)이 아닙니다. '예술'의 공동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예술'이라는 단어조차도 그것의 신비스럽게 다형적이고 분산된 기묘함과 더불어, 이 다양하고 비결정적이고 잡다하고 게다가 혼란하기까지 한 영역의 유일한 지시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 통일성이 아닌 적어도 부정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무언가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언어와 관련된 소거(retrait)입니다. 즉, 언어에서만 갖고 있는 의미의 의미(signification)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소거 자체는 무엇인가를 의미작용이 아닌 sens로 생산하고 제시하고 해방시키기 위한 조건입니다. 적어도 '예술'이 sens(의미)를 갖고 있다거나 sens(의미)를 만든다고 말하기를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sens를 의미작용(예컨대, 과학적 의미, 또는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심리적 의미 등)에 국한시키는 데 동의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은 의미 언어만이 가질 수 있는 의미(signification) 작용을 갖지 않는 sens(의미)의 자리입니다.

의미작용을 갖지 않는 sens는 우리가 규정한 그런 '예술'에만 있을까요? 이것은 여기서 당분간 열린 채로 남겨야만 하는 물음입니다. 하지만 예술이 의미작용을 갖지 않는 sens라든가, 의미작용을 갖지 않는 sens를 만든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술은 전이로서 작용합니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해, 각각의 예술적 실천은 전이 형식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항상 '감각적'인 어떤 것(가령 시각, 청각, 촉각, 운동 감각, 리듬, 후각 등)에서 비감각적인 어떤 것으로의 전이입니다(예컨대, 예술은 우리에게 양귀비꽃의 붉은 색이나 구리 종소리를 이해하도

록 짐지우지 않습니다. 예술이 지우는 짐은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이 참조하는 것은 가지적(可知的)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어에서 주어지는 의미작용(signification)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술의 sens를 만드는 전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각적인 것의 비(非)감각성으로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非)감각성은 결코 감각적인 것의 중단, 감각 마비가 아니라 감각적인 것의 무한한 전이이며, 점점 더 허약하고 해체되고 지각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의해 지각된 감각적인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사진적 기법에 의해, 이 가장 요약된 시각 포착 장치는 눈이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를 줍니다. 이것은 모든 사진적 이미지(영화나 비디오적 이미지, 또는 다른 그래픽적이고 회화적인 이미지 일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늘구멍 사진기는, 가장 불확실하며 때로는 이미지로서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이미지를 내보이면서, 이 차이를 노출시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시각의 질서 안에 남아 있으면서 온통 자신을 상실하고 있는 시각적 감각성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물, 자기 자신의 증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심연으로 익사하는 눈입니다. 그러한 것이 예술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각적인 것의 증발? 혹은 한이 없는 잠김이라 할까요? 다만 sens의 무한함을 느끼게만 하는, 무(無)로의 전이, 무목적지로의 전이라 할까요?

2000년 7월 장 록 낭시

-<Bonjour Soun-gui Kim>, p.65 - 68, hongdesign, 2000, 서울